

## 포스트휴먼 시대의 여성 주체성\*

박 예 은\*\*, 조 미 라\*\*\*

**주제분류** 서양철학, 여성철학, 현대철학, 포스트휴머니즘

**주요어** 포스트휴먼, 포스트휴먼-여성, 포스트-바디, 젠더, 섹슈얼리티, 로지 브라이도티, 유목적 주체

### 요약문

이 논문은 과학기술의 시대에 섹슈얼리티가 재현되는 양상과 그 의미를 전망하고 나아가 여성이 포스트휴먼의 미래구상에서 주체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브라이도티의 논의를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다. 포스트휴머니즘의 낙관적 미래구상에도 불구하고 발전하는 과학기술 안에 여전히 젠더의 문제는 지속될 것이며, 사회 안에서 소모되는 여성성이 발견될 것이다. 남성-여성의 젠더 이분법의 구도는 로봇이나 다른 생명형태로서의 동반종들에게도 이어지면서 여성과 로봇, 여타의 동반종들을 타자로 머물게 한다. 남성과 신체적으로 같아지거나 중성화되는 것으로는 여성이 타자화되는 것을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차이를 긍정하는 브라이도티의 논의를 통해 ‘포스트휴먼-여성’이 미래의 주체로서 유리한 지점에서 있으며 ‘포스트휴먼-여성’의 주체성은 유목적 주체임을 확인한다.

---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6A9931352)

\*\* 제1저자, 중앙대학교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 1. 들어가는 말: 포스트휴먼의 이상

오늘날 우리는 전통적인 인간상을 벗어나 사이보그, 로봇, 인공지능 등의 양상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포스트휴먼들을 마주한다. 일반적으로 포스트휴먼이란 기계 또는 각종 보철물로 강화된 신체를 가지게 되거나 화학적·유전적 조작을 통해 향상된 신체를 가지게 되는 인간 종을 지칭한다.<sup>1)</sup> 포스트휴먼 사상가들 중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인공두뇌학자 케빈 워윅(Kevin Warwick)은 향상된 인간이라고 하는 포스트휴먼의 이상을 자신의 몸에 직접 실현하고자 시도했다. 그는 1998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팔에 마이크로 칩을 이식하여 컴퓨터와 연결되었다. 몸속의 칩은 그의 움직임을 컴퓨터로 전송하여 동선을 추적하고 그의 움직임으로 시스템을 제어하여 집과 연구실 문이 자동으로 열릴 수 있게 했으며 이렇게 그는 스스로 사이보그가 되었다. 그는 우리가 사이보그가 됨으로써 이처럼 신체와 지적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데 순수한 유기체로서의 ‘인간 종’이기를 고집해야 하는지 질문한다.

워윅의 예처럼 과학기술을 통해 신체가 변형되거나 증강되어 포스트휴먼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낯선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우리는 상당부분 사이보그가 되었다. 우리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와 같은 도구를 착용하여 시력을 보완하거나 손에 든 스마트기기들을 통해 원거리의 다수의 사람들과 연결된다. 맨프레드 클라인스(Manfred Clynes)는 안경을 끼고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을 때 인간은 보철적 존재로서의 사이보그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이런 양상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이보그라고 부르기에는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이렇게 기술문명과 밀접하게 부착된 우리는 이미 포스트휴먼으로 향해 가는 노정 위에 있다.

---

1) R. Pepperell, *The Posthuman Condition: Consciousness beyond the brain*, 4쪽.

이러한 관점에서 캐서린 헤일스(Katherine Hayles)도 우리가 포스트휴먼 시대에 와 있으며 우리 자신이 포스트휴먼이 되어 있다고 그의 저서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에서 말하고 있다.

포스트휴먼은 단순히 진보한 미래의 다음 세대 인류를 지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이 그 자신을 넘어서 크게 변화한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을 추구한다. 이들은 전례 없는 육체적, 지능적, 감성적 능력을 지니고 모든 제약들을 뛰어넘을 새로운 종이다. 이처럼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 포스트휴먼의 신체를 도미니크 바벡(Dominique Babin)은 포스트-바디(Post-body)라고 지칭한다.<sup>2)</sup> 포스트-바디는 인간의 육체에 과학기술이 체화되어 과학기술과 신체가 구분 불가능하며 자연의 지배를 받는 육체가 아닌 과학기술이라는 환경 속에 놓이는 육체다. 미래를 낙관하는 이들에게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구현될 포스트휴먼의 시대는 지금껏 인류가 투쟁해 왔던 인간으로서의 한계와 문제들이 극복되며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사회, 풍요와 평화의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우리의 신체를 증강시키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과학기술을 통해 과연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다. 우리가 예견하고 대비해야 할 윤리적, 사회적 문제들은 수다할 것이며 그 모든 문제들이 기술 발전의 속도만큼이나 시급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포스트휴먼 시대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여러 문제들 중에서도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포스트-바디에서 재현되는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아직 우리에게 포스트휴먼이란 미래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영화나 SF소설 등의 각종 매체를 통해 포스트휴먼의 포스트-바디가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예측하며 또한 여성성의 양상들은 어떻게 재현될 것인가

2) 도미니크 바벡은 과학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인간의 육체를 ‘포스트바디’(post-body)라고 지칭한다. D. Babin, 『포스트휴먼과의 만남』, 44-5쪽.

지 예견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인간이 증강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낙관하는 포스트휴먼 구상에서 여성이 여전히 대상화되고 성애(性愛)화되면서 소모되거나 혹은 배제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역사 속에서 언제나 주체가 되기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여성은 세상의 진보와 함께 자신의 주체성을 점차 찾아갈 것이라 낙관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포스트휴먼의 시대에 여성이 여전히 안고 가야 할 딜레마의 상황을 직시한다면 여성이 주체가 된다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었지만 미래에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포스트휴먼 시대의 여성의 포스트-바디 구상은 남녀의 생물학적 성차를 극대화하면서 여성성을 강조하거나 혹은 여성성을 중화시켜 남성과 같거나 중성적인 존재로 구현될 것이다. 생물학적 차이를 극대화하는 것은 결국 성별화 된 위치에 여성을 제한시키거나,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할 우려가 있다. 반면에 여성성을 제거하거나 중화시켜 남성적 혹은 중성적이 되기를 지향하는 경우는 남성성을 인간의 기준으로 삼아 여성은 남성이 되기 위해 자신의 고유한 여성성을 계속해서 부정해야만 한다.

이러한 딜레마는 포스트휴먼의 도래와 함께 우리에게 새롭게 찾아올 문제가 아니라, 초기 여성주의자들로부터 이미 오랫동안 갈등해 온 문제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여성들을 그리고 여성주의 논의들을 진자운동하게 만드는 주제다. 여성이 미래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오랫동안 남성과의 생물학적 차이에 집중할 것인지 혹은 남성과 같아져야 하는 것인지를 고민해 온 과거의 논의들에 기대어 미래에도 동일하게 이어질 딜레마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여성이 이러한 딜레마를 안은 채로 포스트휴먼의 미래를 맞이하게 된다면 포스트휴먼의 주체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여성의 주체성 문제는 남성의 혹은 보편적 인간의 주체성 문제보다 더 곤란한 문제가 될 것이다.

## 2. ‘포스트휴먼-여성’의 좌표

윤지영은 포스트휴먼 주체에게도 본질적으로 젠더 불평등이 존재할 수 밖에 없음을 휴머노이드(humanoid)와 안드로이드(android)라는 단어의 분석을 통해 보여준다. 인간과 남성을 지칭하는 human과 그리스어인 andro로 이루어진 두 단어는 어원학적으로 인간 중심주의적이며 남성 중심적인 방식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 로봇을 가리키는 gynoid는 그리스어로 여성을 지칭하는 gyneka와 합성된 단어다. 이처럼 포스트휴먼의 주체성 역시 여전히 젠더라는 범주 안에 놓여 있다.<sup>3)</sup> 그렇다면 여성으로 구현된 포스트-바디는 미래에도 근대 이후로 여성 자신들이 싸워왔던 성별화 된 위계질서 혹은 생물학적 결정론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 운명일까? 여성으로서의 포스트휴먼은 포스트휴먼의 주체성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논문에서는 앞으로 언급할 여성으로서의 포스트휴먼을 ‘포스트휴먼-여성’(posthuman-women)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포스트휴먼 중에서도 여성으로 구현되는 포스트-바디에 집중하여 그들이 처할 현실을 예상해보고 그들이 미래의 주체가 될 가능성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여성’이라는 단어는 여성으로서의 포스트휴먼의 양상들은 다양하게 구현될 것이며 그 범주도 다양하게 묶이게 될 것이므로 대문자 여성(Woman)아닌 여성들(women)의 의미를 담는다.

이 장에서는 포스트휴먼-여성을 세 범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김건우는 사이보그, 안드로이드, 돌연변이, AI, 유전자 혹은 공학적으로 강화된 신체 등 다양한 양상으로 구상되는 포스트휴먼의 범주를 세 가지로 구분한다.<sup>4)</sup> 먼저 인간의 뇌나 장기, 사지 등을 기계장치로 교체한 존재

3) 윤지영, 「주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학으로서의 주체의 콘텐츠화」, 271쪽.

로서의 사이보그에서 볼 수 있는 기계화된 인간, 인간의 모습이나 기능을 흉내 내는 인공지능이나 로봇과 같이 인간화 된 기계, 그리고 유전적 방법에 의해 인간이 창조해낸 복제인간이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사람들이 포스트휴먼의 미래를 구상할 때 여성으로 구현되는 포스트-바디를 살펴보고 포스트휴먼-여성이 안게 될 문제들을 예상해 볼 것이다.

① **기계화된 인간:** 인간의 기계화는 인간의 신체에 기술의 개입을 통해 능력을 증강시키고 변화를 주는 경우를 가리킨다. 우리의 신체가 기계와 결합되는 경우는 신체의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이거나 혹은 우리의 신체가 상실한 어떤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과학과 의학기술의 발전은 손상된 인간의 장기나 사지 등을 기계로 교체하거나 약물이나 유전자적 처치를 통해 인간의 능력을 증강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인간이 기계화 되는 것은 극단적으로는 인간의 정신이 자신의 신체를 벗어나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로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급진적 형태로까지 상상된다. 하지만 실제로 포스트-바디는 물리적 신체의 형태나 개념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포스트-바디는 대체로 인간의 생물학적 특징들과 성차를 유지하거나 혹은 극대화하여 구현된다.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는 사이보그를 기존의 남녀의 성 구분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개념으로 제시한다. 여성이 임신과 출산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꿈꾸었던 파이어스톤과 같은 급진 여성주의자들의 소망이 사이버기술의 도래로 인해 실현 가능하게 되었다. 기술을 통해 여성들은 생물학적 신체를 초월하고, 여성이라는 역사적 범주, 타자와 객체라는 위치에서 벗어나 자신들을 재정의 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sup>5)</sup>

하지만 발사모(Ann Balsamo)가 주지하다시피 사이보그의 이미지는 대

4) 김건우, 「포스트휴먼의 개념적, 규범학적 의의」, 『포스트휴먼 시대의 휴먼』, 32-4쪽.

5) J. Wajcman, 『테크노페미니즘』, 138쪽.

중문화 속에서 젠더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재생산할 가능성이 있다. SF영화나 소설에서 우리는 여성이 사이보그가 되면서 그 젠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되고 섹슈얼리티가 강조되는 양상을 자주 접한다. 주디 와이즈먼(Judy Wajcman)은 할리우드 영화 속에서 사이보그들이 “몸에 착 달라붙는 라이크라 옷을 걸치고 거대한 무기를 휘두르는 섹시한 금발 여성의 신체”로 그려지는 것을 지적한다.<sup>6)</sup>

또한 인간의 기계화는 종종 장애의 극복과 연결되는데 포스트휴먼의 장애극복의 예로 자주 제시되는 에이미 멀린스(Aimee Mullins)는 종아리 뼈가 없어 양 다리를 절단했지만 장애인올림픽 달리기 선수였으며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사람의 다리와 유사한 의족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의족을 바꿔가며 사용한다. 여러 종류의 의족으로 다리의 모양과 키를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에이미에게 친구는 불공정하다며 불평한다. 이처럼 기술을 통해 인간은 장애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구현해 낼 수도 있게 된다. 사람들은 기술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한계나 장애를 극복한 이후에는 자신의 젠더를 극대화하면서 외양을 더욱 매력 있게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신체의 섹슈얼리티를 강조한다.

② **인간화된 기계:** 인간이 자신의 몸을 기계화하며 자연의 신체에서 멀어지는 한편 로봇은 점점 더 자연적인 인간의 모습을 닮아간다. 첨단 로봇이 남성이나 여성 혹은 동물의 외양을 본 따 만들어진다. 제작자들은 로봇을 디자인할 때 그것이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 사회가 만들어낸 젠더의 특징을 극대화 한다. 각지고 투박하거나 부드럽고 매끄러운 기계 디자인으로 남성적이고 여성적인 젠더의 의미를 부여한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인간화된 기계의 범주에 속하는 포스트휴먼은 인간과 더욱 흡사한 특성을 가지거나 정교하게 만들어질수록 여성적으로 구현되거나 여성

6) J. Wajcman, 『테크노페미니즘』, 149쪽.

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비서나 돌봄 로봇 등과 같이 사람들과 감정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개발할 때, 이들은 주로 여성적으로 만들어진다. SF영화 등에서도 정교하고 고도로 섬세한 포스트-바디들을 그려낼 때 주로 여성 신체의 특성이 강조되거나 여성적으로 그려진다. 김건우는 기계의 인간화의 예로 영화 <그녀>의 ‘사만다’나 <엑스마키나>의 로봇 ‘에이바’의 예를 든다.<sup>7)</sup> 에이바는 여성 로봇으로 그려지며 사만다는 신체가 없는 인공지능이지만 여성의 젠더를 취한다. 이들은 인간에 의해 설계되고 제작된 존재이지만 마치 진짜 인간인 것처럼 그리고 진짜 여성인 것처럼 인간과 교감하고 소통한다.

영화 등에서 그려지는 인간화되고 인간을 뛰어넘은 인공지능은 단지 인간과 교감하고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사고하고 느낄 수 있으며 그 능력에 있어 인간을 월등하게 뛰어넘는 로봇들은 인류에게 위협이 되기도 한다. 아이작 아시모프(Isaac Asimov)의 영화 <아이, 로봇>에서 인공지능 ‘비키’는 인간이란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통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다. 고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인간에게 위협적인 존재인 인공지능 비키는 여성으로 젠더화되어 나타난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주체적 의식을 가지고 주인공과 친구가 되며 인간을 보호하는 로봇 ‘씨니’는 남성의 목소리와 체형을 보여준다.

영화 <그녀>의 사만다는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한에서는 가장 급진적인 양상의 사이보그라 할 수 있다. 신체가 없이 데이터와 목소리만으로 존재하는 사만다는 인공지능이면서 마치 유기적 생명체인 것처럼 인간과 교류한다. 사만다는 생물학적 여성의 신체를 갖지는 않지만 여성의 젠더를 가지며 남자 인간과 육체적 교류를 원한다. OS인 사만다와 주인공 인간의 관계는 마치 보편적 인간으로 설정된 성인 남성과 알 수 없

7) 김건우, 「포스트휴먼의 개념적, 규범학적 의의」, 『포스트휴먼 시대의 휴먼』, 33-4쪽.

는 신비의 영역에 있는 타자 여성의 관계처럼 대비된다. 사만다는 남성과 사랑에 빠지고 욕망을 실현하고 싶어 하면서 사회가 구성한 여성이라는 일반적 젠더의 역할을 보여준다. 하지만 동시에 여성이라는 젠더의 전형적인 모습을 벗어나 한 번에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여러 대상과 사랑에 빠지기도 한다. 주인공인 백인 남성 시어도어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며 다른 방식의 언어로 소통하는 사만다를 이해할 수 없고 혼란스러워 한다.

영화나 드라마, 소설 등에서 그리는 여성 안드로이드나 인공지능의 모습은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위로하고 비서나 가사도움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통적으로 고정되어온 여성성이라는 환상에 매우 부합하거나 극대화 된다. 그러면서도 성적으로는 적극적인 태도를 표현하며 ‘여성의 신비’<sup>8)</sup>를 전형적으로 그리고 있다. 우리가 살펴본 예들은 주로 영화에서 그리는 가상의 미래였지만 현실에서도 인간화 된 기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로봇을 젠더화 하는 것과 로봇의 섹슈얼리티에 상당히 기울어 있다. 특히 로봇에게 젠더를 부여하는 것이 극대화 되는 것은 섹스산업에서다. 인간에 가까운 로봇을 구상하는 작업들은 쉽사리 성적 쾌락을 위한 도구를 만드는 것으로 이어진다. 미래학자인 이안 피어슨(Ian Pearson) 박사는 2025년에는 로봇과의 성관계가 흔해질 것이고 2050년에는 로봇과의 성관계가 사람간의 성관계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한다.<sup>9)</sup>

③ **복제인간:** 복제인간과 관련한 젠더문제로는 일반적으로 배아복제에 있어서 여성의 난자 공여와 관련한 문제들이 논의되어 왔다. 난자 추출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위협, 여성이라는 한 인격의 신체가 실험용 도구 혹은 실험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 등이 주된 논점이

8) B.Friedan, *The Feminine Mystique*(『여성의 신비』). 베티 프리단은 매력적인 아내와 훌륭한 어머니에 대한 신화는 여성에게 부여된 잘못된 이미지이며 적극 거부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9) <https://n.news.naver.com/article/053/0000025506>

었다. 우리는 이에 더해 복제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그들을 인간이라는 범주에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다른 동반종들 중 하나로 생각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복제인간은 유전적으로 어떤 인간을 복제하여 만들어진 존재다. 생명 복제는 1997년 복제 양 ‘돌리’를 시작으로 여러 동물에 시도되었으며 인간의 복제만을 남겨두고 있다. 인간복제는 윤리적 문제로 인해 멈추어 있으며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기술적으로는 이미 가능한 단계에 와 있으며 ‘돌리’의 사례는 이와 마찬가지로 복제인간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복제인간은 신체적 조건으로만 본다면 트랜스 휴먼이나 포스트휴먼이 아닌 보통의 인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이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이들을 전통적 인간의 개념과는 다른 범주에 포함되도록 한다.

복제인간을 상상할 때 우리는 그들을 모체에서 복제된 2차적 존재로 인식한다. 원본인 인간이 있으며 복제된 인간은 모체보다는 권리나 존엄성에 있어서 우선성이 떨어지는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에게 왜 자신과 동일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노예나 소유물과도 같이 여겨질 복제인간이 필요할까? 복제인간을 다룬 영화 <아일랜드>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복제인간이 만들어지는 배경이 되는 것은 더 오래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다. 복제인간들은 난치병의 치료나 장기 이식을 위한 목적 등 인간 수명의 연장을 염두에 두고 복제된다. 더 나아가 복제인간 기술을 통해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되살리는 기대까지도 하고 있다. 그러나 복제인간이 존재할 미래를 상상하는 많은 영화들은 마치 하나의 상품처럼 인간을 만들고 처리하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준다.<sup>10)</sup> 복제인간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생명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이 복제인간을 만들게 된다면 그

10) 영화 <네버 렛 미 고>나 <아일랜드> 등 복제인간을 다룬 영화에서는 장기적출을 위해 만들어지고 효용가치를 다하면 폐기처분되는 복제인간들의 비극적 현실을 그린다.

것은 자신의 욕망 때문일 것이며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은 인간과 동일하면서도 그 출생에 있어서 언제나 인간을 위한 도구로서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는 복제인간에 대해 생각할 때 복제된 인간은 원본인 인간을 위협하거나 원본 인간의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제한다. 이처럼 복제인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철저히 인간중심적이다.

인간을 위해 만들어지고 희생당해야 할 운명을 타고나는 복제인간의 이미지는 인간의 유전자를 변형 복제하여 이식한 실험용 쥐 온코마우스(OncoMouse)와 중첩된다. 해러웨이는 온코마우스에게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 실험용 쥐는 세계 최초로 특허를 받은 동물로 연구실에서 만들어진 발명품이며 인간의 암 유전자를 이식받음으로 그 안에서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무너진다. 또한 생명체인 동시에 연구재료로 맞춤 제작되어 팔리는 상품으로 이용되기에 생명과 사물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온코마우스는 여성의 유방암 치료를 위한 연구에 사용되기에 특히 여성의 몸과 연결된다. 이 실험용 쥐는 여성을 상징하면서 기술과학 시대에 신체와 관련해 주변화되고 억압당하는 여성의 존재를 드러낸다. 해러웨이는 온코마우스가 많은 여성을 살리기 위한 유방암 치료법 발견을 위해 희생당하는, 마치 예수와도 같은 존재라고 주장한다. 이 실험용 쥐는 애초에 인간을 위해 희생되도록 태어난 존재이다. 인간은 자신의 종이 특별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인식하지만 브라이도티는 그 중에서도 인간 종의 여성이 놓여 있는 위치는 여성을 구조적으로 봉사하는 존재로 만든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여성은 자신을 신성불가침적이고 온전한 인간 종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장기와 세포를 제공하는 유기체에 더 친밀감을 느낀다.<sup>11)</sup>

11) R. Braidotti, 『포스트휴먼』, 107쪽.

미래의 혁신적 기술로 인해 인간은 자신을 새롭게 발전시켜가며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하지만 포스트-바디 구상에서 재현되는 여성의 모습들을 살펴볼 때 이러한 기술들이 드러낼 한계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포스트휴먼은 기존의 남녀 구분, 인종의 구분 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과 그러한 구분을 더욱 극대화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가진다. 미래의 인간의 육체는 우리가 자유롭게 만들고 다룰 수 있는 보철이 되면서 기계화 된 인간의 몸 안에 여전히 성차를 지속하는 공간이다. 그 성차를 무화하려는 시도나 극대화하려는 시도 모두 포스트휴먼-여성에게는 자신을 부족한 존재로 여기게 하고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한다.

한편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한계로 여기고 극복할 것을 요청받는 것은 포스트휴머니즘이 장애에 요청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기술은 인간을 기계화 하면서 이 세상에서 장애라고 규정된 신체적 한계들이 존재하는 것을 허락지 않을 것이다.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이 자신의 물리적 신체로 인해 경험하는 제약들, 한계들을 완벽히 보완하고 오히려 생득적인 기능들을 뛰어넘을 것을 추구한다. 포스트휴머니즘의 요청에 대해 여성과 장애인들은 유사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둘째, 인간화 된 기계로서의 포스트-바디는 섹슈얼리티를 더욱 다양하고 자유롭게 재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이 기술들을 통해 인간 주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포스트-바디를 성적 대상으로 만들어 쾌락을 실천하는 데 몰두할 것이 예상된다. SF물 등에서 흔히 그려지는 미래의 구상에 있어서도 이러한 쾌락실천의 양상들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셋째, 미래에는 복제인간을 비롯한 많은 다른 동반종들이 인간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한 이들은 인간의 증강과 수명연장을 위해 사용되거나 희생될 것이다. 인간을 다른 인간을 위한 상품으로, 여유분의 신체처럼 만들어내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문제는 다른 동반종들에게

도 마찬가지로 의문시될 수 있다. 의료를 위해 인간의 복제가 허용된다면 사용 후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문제다. 장기를 제공한 후 생존이 의문시되는 복제인간은 폐기되어도 되는가?

신체에 집중하면서 인간을 다양한 양상의 포스트휴먼으로 만들어가는 미래의 기술들은 섹슈얼리티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하지만 물리적인 신체와 성차에 주목하는 것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집단을 젠더화하여 이전의 여성의 위치를 대체하게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여성들이 첨단 기술의 증강 기술을 통해 비투르비우스적 인간, 근대의 남성적 표준에 맞추어 가거나 그것을 뛰어넘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여성들에게 더 나은 처지를 허락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에 더해 여성들보다 낮은 지위에 놓이게 될 새로운 종들도 계속해서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 3. ‘포스트휴먼-여성’의 딜레마

근대의 이원론적 관점은 세상을 여자/남자, 백인/유색인, 자연/문화, 인간/동물, 인간/기계, 감성/이성 등으로 이원화할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이항대립의 쌍들을 무한히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들은 성차의 원인이자 동시에 효과로 나타난다. 포스트휴먼의 포스트-바디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하면서도 동시에 근대 휴머니즘의 이상적인 인간(Man)의 몸에 더 가까워지기를 지향한다. 동시에 그 안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 위계질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과거의 여성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나 여성성을 신비로 생각하는 관점들이 미래를 상상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인간을 닮아가는 로봇에게 젠더의 이미지는 여전히 유효하며 사회의 성고정관념을 그대로 답습한다. 미래를 그리는 다양한 SF의 서사에서 성적으로 대상화되거나 인류에게 위협을 가하는 존재로 구현되는

포스트휴먼들은 주로 여성으로 상상된다.

이런 이분법적 구도에서 오랫동안 여성주의의 주요 쟁점은 차이와 평등의 문제였다. 제인 프리드먼(Jane Friedman)이 말하는 것처럼 페미니즘의 역사는 평등의 추구하고 차이의 추구 사이에서 진자운동 해 왔다.<sup>12)</sup> 초창기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남성중심적인 기존의 시민권 개념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남성 중심의 보편적 시민권을 거부하고 여성 고유의 경험과 가치를 존중하는 시민권 개념을 추구할 것인지를 두고 갈등했다. 이러한 고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여성들을 고민하게 만든다. 젠더간의 평등과 젠더 중립적 사회를 요청할 것인지 아니면 남성과 다른 여성의 차이, 여성의 특수한 능력과 욕구에 대한 인정을 요구할 것인지 안에서 대부분의 여성주의자들은 이 두 요청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배제해야 할 딜레마의 상황에 놓인다.

여성은 성차를 극복하고 남성과 똑같아지도록 투쟁해야 할 것인가,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고 다르게 대우받기를 요구할 것인가? 여성들에게 남성과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되면 이미 불평등한 상황 가운데 놓인 여성에게 그 동등한 대우는 더 큰 불평등으로 작용하여 남성과의 격차를 더욱 넓힐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차이에 주목하여 여성을 특별하게 대우할 경우 또 다른 차별을 낳게 되며 여성의 완전한 평등의 실현은 더욱 멀어질 것이다. 여성들은 같음이 오히려 차별을 유도하고 차이는 차별을 영속화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것을 캐럴 페이트만(Carole Pateman)은 ‘울스틴크래프트의 딜레마’(Wollstonecraft’s Dilemma)라고 정식화한다.

여성이 처한 이러한 이원론적 구조를 극복하고자 하는 도나 해러웨이는 1985년 논문 「사이보그 선언: 과학, 테크놀로지, 그리고 1980년대의 사회주의 페미니즘」(“A Manifesto for Cyborgs”)에서 여성을 사이보그와

---

12) J. Friedman, 『페미니즘』, 29쪽.

연결시키면서 이원적으로 위계화 되어있는 여성의 지위를 새롭게 위치시킨다. 포스트휴먼의 시대에는 인간의 자연적 신체는 점차 사라지고 사이보그로서의 신체가 남을 것이다. 해러웨이는 다양한 존재들을 사이보그의 범주에 포함한다. 유인원, 유전자, 생태계, 뱀파이어, 온코마우스 등 다양한 동반종들로 제시되는 사이보그는 그것이 인간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젠더의 구분도 없음을 보여준다. 사이보그는 인간이면서 동시에 기계인 존재이며 그 안에 혼종성과 차이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사이보그는 새로운 독립적 주체로서 이항분립된 위계질서에 균열을 가하고 해체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러기에 해러웨이는 「사이보그 선언」에서 “20세기 후반에 이른 우리의 시대, 이 신화적 시대에, 우리 모두는 키메라이자, 기계와 유기체가 이문화되고 가공되어진 혼합물,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사이보그”라고 말한다.

사이버기술의 도래로 여성들은 생물학적 신체를 초월하고 사이보그와 결합된다. 이를 통해 여성은 남성/여성의 이분법적 위계질서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위치를 부여받는다. 여성이라는 범주는 사이보그와 결합하여 새로운 범주로 정의된다. 과학기술과 연결된 신체를 구상하는 것은 보통 남성적인 힘의 현현으로 혹은 적어도 중성적이 되는 것으로 연상하기 쉽지만 해러웨이는 독특하게도 사이보그를 여성과 연결한다. 그 외에도 해러웨이는 사이보그의 범주에 다양한 동반종들을 포함시키면서<sup>13)</sup> 사이보그의 개념이 탈인간적임을 보여주며 나아가 섹스와 젠더의 이분법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원론적인 관점으로 자연과 문화,

13) 해러웨이는 사이보그와 더불어 여성인간©과 온코마우스™라는 동반종들을 통해 타자화 된 존재들을 형상화(figuration)한다. 여성인간©이란 마치 남자·Man'라는 단어가 인간을 대표하는 것처럼 여성이 인간을 대표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온코마우스™는 유전자 복제동물이며 세계에서 첫 번째로 특허를 받은 쥐로 유방암 치료법을 연구하기 위해 유전자가 이식된 생쥐다. 여성인간©과 온코마우스™는 경계의 횡단을 보여주는 상징적 형상화이며 차별받는 존재를 의미한다. D. Haraway, 『겸손한 목격자』(서울:갈무리, 2007).

인간과 기계, 감성과 이성, 남성과 여성을 이항대립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성차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결과에 간헐 수밖에 없으며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이론은 이러한 이원론에 도전하여 그것을 넘어서도록 이끈다.

하지만 발사모가 지적하듯이 사이보그의 이미지는 해러웨이가 분석한 것처럼 해방적인 것이기보다는 대중문화 안에서 젠더의 상투적 이미지를 재생산해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SF영화나 소설 등에서 그려지는 사이보그나 로봇에서의 여성성의 강조는 사이보그가 여성의 해방을 형상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섹슈얼리티를 강조하고 전통적 성차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앞서 확인한 바 있다.

해러웨이는 사이보그를 탈젠더적인 것으로 보면서 사이보그로 구분되는 여성도 섹스나 젠더의 구분과 무관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이보그로서의 여성은 젠더 없는 몸을 지향하면서 여성이 젠더화 되어 근대적인 위계질서 속에 놓이는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낙관한다.

그러나 사이보그가 되는 인간에게 적어도 자신의 젠더를 선택할 가능성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젠더이분법이 해체되고 여타의 이원론적 관점들을 넘어서 수 있다고까지 전망하는 것은 과도하게 낙관적인 생각이다. 그러한 낙관은 여성을 다시 한 번 딜레마의 상황에 놓이게 한다. 여성은 여성성을 지닌 자신의 몸을 부인하고 자신의 몸에 새겨진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인해야 하는 것인가? 여성으로서의 젠더를 버리는 것은 여성의 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젠더를 얻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가?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생물학적 성의 도구로서의 몸을 거부하고 사이보그가 된 여성은 젠더 없는 몸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젠더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미 남성과 여성이 실존적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전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미래의 포스트휴먼, 포스트-바디를 상상하면서 사람들은 기술적 차원에서 그것이 과연 실현가능한 것인지, 혹은 윤리적 차원에서 시도되어도 되는 것인지 질문한다. 하지만 그러한 질문들의 답을 찾기도 전에 이미

우리 자신의 위치는 포스트휴먼을 향해 가는 노정 위에서 발견된다. 포스트휴먼의 구상들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와는 상관없이 그러한 기획은 이미 진행 중이며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근대적인 이원론의 틀 안에서는 포스트휴먼의 시대가 되어서도 여성들은 평등과 차이의 딜레마를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 채 방황하게 될 것이다.

#### 4. ‘포스트휴먼-여성’의 주제성

근대의 이분법적 사고는 인간의 신체성 자체를 속박과 제약으로 인식했으며 신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초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중에서도 여성적인 신체는 남성적인 신체보다 더욱 열등한 것이었다. 우리가 미래의 포스트-바디를 구상할 때도 신체에 대한 이 근대적 사고들은 유지된다.<sup>14)</sup> 하지만 신체라는 껍데기를 벗어버린다고 해서 인간이 자유로운 초월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인격을 데이터화 하여 컴퓨터에 업로드 하는 등 첨단 기술을 통해 인간이 신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가능성을 상상할 때에도 그렇게 데이터화 된 인간의 사고는 여전히 신체적으로 머물거나 다시 신체를 되찾기 원한다. 인류가 포스트휴먼으로 변형되고 증강되는 것은 우리의 신체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될 것이며 포스트휴먼의 신체에는 변화하고 발전하는 인간의 경험이 선명하게 남겨질 것이다.

포스트휴먼리즘은 인간의 신체가 증강되어가는 노정에서 인간의 한계나 장애를 수궁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극복하고 증강시켜야 할 것으로 인식한다. 인종이나 생물종 간의 자연적이고 생물학적

14) 예를 들어 영화 <공각기동대>의 주인공 쿠사나기의 몸은 강인하고 중성적인 인상을 주는 신체로 그려지며 <그녀>의 주인공인 OS 사만다는 완전히 탈육화 된 포스트휴먼의 한 예를 보여준다. 영화 <트랜센던스>에서 주인공은 죽음의 위기에서 신체를 벗어나 데이터로 환원되어 컴퓨터로 옮겨진다.

인 차이는 다양성으로 수용되기 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 되었다. 포스트휴먼의 이상은 마치 우리의 몸을 계속해서 결핍으로 인식하면서 풍요의 미래를 꿈꾸는 것처럼 되어버렸다. 차이를 가지고 사는 것은 세계 안에서 배제를 경험하게 했었다. 하지만 그 차이를 극복하고 보편적 기준에 도달하도록 요구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배제를 경험하는 것이다.

포스트휴먼의 시대에도 근대의 이분법적 사고는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여성은 언제라도 타자화 될 수 있으며 사회를 이루고 있는 위계질서는 사라지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포스트휴먼 시대에 여성은 자신의 주체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외부로부터 주어지기를 기다릴 것도 아니고 남성들로부터 빼앗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 획득해야 하는 것이다. 아니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주체성을 인식하고 긍정해야 할 것이다. 김분선은 푸코의 윤리에서의 고대의 여성 주체 역시 남성과 마찬가지로 윤리적 주체였으며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그것을 관리하는 삶을 살았고 자신의 윤리적 힘을 키우고 자기 삶의 아름다움을 윤리적 기술을 실천하는 것으로 완성하고자 했다고 분석한다. 이를 통해 푸코는 고대의 여성이 이미 자기 배려의 주체로 존재했음을 보여준다.<sup>15)</sup> 고대의 여성이 여성이면서 동시에 주체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포스트휴먼 시대에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성차를 강조하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 중 한 명인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를 통해서 포스트휴먼 시대 여성의 주체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브라이도티는 80년대의 성차이론가들과 젠더이론가들 사이의 논쟁을 분석하면서 젠더이론가들은 탈성화되고 젠더가 없는 입장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여성적인 것을 거부할수록 상황이 더 좋아진다고 주장하게 된다고 말한다. 성차를 거부하는 젠더이론가들은 젠더를

---

15) 김분선, 「여성 윤리 주체의 자기 체현 기술」, 27쪽.

넘어서거나 벗어나는 주체성을 옹호하며 성적으로 차별화되지 않은 새로운 주체성을 위해 성적 이원론과 젠더 양극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6)</sup> 반면 성차를 주장하는 입장은 여성적인 것에 대한 다른 의미들과 재현들을 창출하기 위해 여성적인 극으로 나아가게 된다.<sup>17)</sup> 성차의 존재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성을 또다시 양극화된 위계 구조 속에 놓이게 하는 것일까? 젠더 이론가들의 주장처럼 기술을 통해 탈육화하거나 혹은 중성적인 몸이 되는 것, 여성성의 구현을 최소화하는 것이 여성에게 주어진 미래일까?

성차를 필연적이고 존재론적인 것으로 보는 브라이도티에게 성차는 정황적 지식을 생산해내기 위한 중요 요소다. 성차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같은 우연적 요소가 아니라 존재론적 양태이며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성차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8)</sup> 성차의 기획은 차이에 대한 모든 논쟁을 육체의 경험과 여성의 경험과 다시 연결시키려는 의지와 관련되어 있다.<sup>19)</sup>

성차를 벗어나려는 것은 신체를 벗어나려는 것이며 몸의 경험들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몸이 위치한 정황들을 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브라이도티에게 있어 주체성은 신체 위에서 형성된다. 몸은 자연적이고 생물학적 실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코드화되고 사회화되는 현장이다. 그러기에 브라이도티는 성차를 반대하는 페미니즘이 여성적인 것을 무화시키고 남성과 같아지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페미니즘이란 성차를 무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녀 간의 사회적 평등을 위한 투쟁 전략을 통해 성차를 작동시키는 운동이다. 페미니즘은 질문이고 실정성(positivity)으로서의 성차의 확인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sup>20)</sup>

16) 오수원 역, 「쥬디스 버틀러와 로지 브라이도티의 대답」, 292쪽.

17) R. Braidotti, 『유목적 주체』, 243쪽.

18) R. Braidotti, 『유목적 주체』, 274쪽.

19) 오수원 역, 「쥬디스 버틀러와 로지 브라이도티의 대답」, 280쪽.

근대적 사고에서 차이는 위계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이제 브라이도티에게 차이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차이는 다양하고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복합적인 균열의 층위를 드러낸다. 현실의 여성들은 다중적이다. 그들은 분열되어 있고 파편화되어 있으며 교차하는 경험의 수준들을 가로질러 구성되어 있다.<sup>20)</sup> 여성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부단히 성차화되고 여성으로 분류되는 현실 위에 놓여 있다. 이러한 근본적 비대칭을 직관하고 존재론적 성차를 긍정하는 것은 여성으로 하여금 페미니즘의 집단적 주체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학이다. 존재론적 차이는 육체적 현실로서 체현되는 것이며 항상 구체적이고 정황적인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

여성의 성차를 강조하는 것은 ‘대문자 여성’(Woman)의 범주 아래 다양한 여성들,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층위에 놓이며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여성들을 한 데 모으는 것이다. 브라이도티는 모든 여성이 제2의 성인 대문자 여성이라는 조건 위에서 만날 때 연대 의식을 가지고 여성운동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브라이도티가 대문자 여성이라는 조건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주목하는 차이는 단지 여성들이 하나의 조건 안에 묶어버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2의 성으로 구성되어 온 가부장적 역사를 드러내어 비판하려는 것이며 여성이 대문자 여성으로 묶여 온 경험들을 드러내는 지점이다.

따라서 여성들은 대문자 여성이라는 범주 아래 정착하고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 머물렀던 경험을 통해 그 자리를 벗어나 새로운 정체성을 향해 유목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역시 여성들이 목표로 삼아야 할 정체성이 아니라 그 지점으로부터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이행지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브라이도티는 포스트휴먼 시대의 새로운 주체로 ‘유목적 페미니스트 주체’라는 개념을 제

20) R. Braidotti, 「새로운 노마디즘을 위하여」, 150쪽.

21) 오수원 역, 「쥬디스 버틀러와 로지 브라이도티의 대답」, 280쪽.

시한다.

이 때 유목민의 이미지는 단지 집이 없거나 장소의 이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코드화된 사유 방식과 행동 방식에 안착하기를 거부하는 비판적 의식, 관습 집합의 전복을 의미한다.<sup>22)</sup> “유목적 주체가 된다는 것은 ‘차이’에 둘러붙어 있는 부정적인 의미와 폭력적인 종속화 양식을 말끔하게 씻어낼 수 있도록 도전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3)</sup> 나아가 차이를 받아들이고 연대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나 여성들 간의 차이만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과 다양한 포스트휴먼 바디들이 공존하는 기반이 될 수도 있다. 그 출생이 정당했던 그렇지 않은 간에, 혹은 인간의 도구로 존재하든지 주체로 존재하든지 간에 이미 실현되어가는 포스트휴먼의 신체들은 인간과 함께 같은 시간을 점유해 가고 있다.

우리의 몸은 언제든 포스트-바디로 변화할 수 있는 유목적 노정에 놓여 있다. 유목적 주체는 그 정체성이 이미 정해진 주체가 아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생성해 나가는 주체를 의미한다. 유목적 주체는 역사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경험을 자신의 몸에 새기며 변화해 가는 존재이며 다양한 연결지점을 찾아 끊임없이 이행한다.

브라이도티의 유목적 주체는 어떤 하나의 이론에 의존하지 않는다. 비록 그 자신은 성차의 이론을 취하고 있지만 때로는 다른 노선에서 있는 해러웨이의 사이보그론을 적극적으로 가져올 수 있으며 상이한 이론들

22) R. Braidotti, 『유목적 주체』, 32쪽. 브라이도티의 유목적 주체의 개념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유목적 주체성에 연결되어 있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공저 『천 개의 고원』에서 주체성을 정확적 주체성과 유목적 주체성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정확적 주체성은 사회의 지배적 질서를 내면화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며 유목적 주체성이란 욕망의 탈주선을 따라 어떤 주어진 상태나 질서에 고정되지 않고 경계들을 가로질러 끊임없이 변화하고 분열하며 새로운 대상과 가치를 창출하는 능동적 주체가 되는 것이다. 유목적 주체성은 능동적인 소수자 되기에 의해 발생한다.

23) R. Braidotti, 『유목적 주체』, 9쪽.

위를 교차하여 그 자신이 유목적 여정을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여정들에 대해 길을 잃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유쾌한 사고의 방식으로 받아들인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유목적인 포스트휴먼 주체가 반토대주의적이거나 해체적인 포스트모던의 주체인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유물론적이고 생기론적이며, 체현되고 환경에 속해 있는 주체, 페미니즘의 ‘위치의 정치학’에 따라 어딘가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주체”다.<sup>24)</sup> 차이들을 횡단하면서도 그 안에 구별되어 있으며, 신체를 가지고 환경 속에 놓여있기에 책임을 지는 주체, 집단성과 합리성, 공동체 건설에 대한 강력한 의식을 가진 주체다.<sup>25)</sup>

2장에서 우리는 포스트휴먼-여성이 재현되는 양상들을 예측해 보면서 포스트휴먼리즘이 우리에게 안겨줄 한계들에 대해서 짧게 살펴본 바 있다. 근대적 사고는 여성의 신체를 남성의 신체보다 열등하고 제약적이라고 여기게 했다. 여기에 미래의 기술은 여성들에게 남성과 같은 혹은 그 이상의 신체적 능력을 허락하여 여성해방을 약속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브라이도티의 기획은 반대로 나아간다. 여성의 특징들을 열등한 것으로 전락시키지 않으며 나아가 장애나 한계, 차이를 열등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수궁하게 한다. 여성으로서 겪었던 제약이나 한계의 경험은 배제된 타자성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강점이 된다.

또한 포스트휴먼-여성으로서의 주체는 섹슈얼리티가 강조된 성적 대상으로 구현되기 쉽지만 그 자신이 욕망의 대상으로 재현되는 상황에 좌절하지 않아야 한다. 포스트휴먼-여성은 그 스스로가 욕망을 주체적으로 실현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윤리적 주체가 될 가능성을 그의 신체에 가진다.

마지막으로, 여성은 그 자신이 배제당하고 고통 받는 존재였기에 인간을 위해 희생당하는 존재인 복제인간, 실험용 쥐, 유전적으로 조작된 많

24) R. Braidotti, 『포스트휴먼』, 70쪽.

25) R. Braidotti, 『포스트휴먼』, 67쪽.

은 동물들과 더 많은 친밀성을 공유할 수 있다. 나아가 그 자신이 만든 새로운 질서 위에 다른 동반종들을 환대할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휴먼-여성은 이러한 친밀성 안에서 고통 받는 존재들의 입장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휴먼-여성은 이러한 유목적 주체의 특징들을 가지면서 그 자신의 포스트-바디에 유목적 여정을 새기고 다양한 동반종들과 친밀성을 공유하면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갈 유목적 주체 그 자체다. 앞으로 많은 종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인간을 위해 희생되거나 도구화 될 가능성이 있지만 유목적 주체로서의 포스트휴먼-여성은 그 자신을 변형하며 타자들과 소통하고 주체적으로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5. 나가는 말

미래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제공할 무한한 가능성을 기대하기도 하고 오히려 과학기술이 인간을 속박하고 통제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기술은 여성을 억압하는 기제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존재론적 가능성을 제공할 수도 있다. 새로운 포스트-바디들은 우리 곁에 나타나면서 지금까지 당연시했던 이분법적 관계들에 의문을 제기한다. 인간과 자연, 남성과 여성을 대립시키며 자연과 여성에게, 타자에게 억압적이었던 휴머니즘의 한계는 포스트휴머니즘 안에서 극복가능하리라고 낙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예측해보았던 포스트-바디의 양상들은 미래에도 젠더화되고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위치에 놓이는 계층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또한 새롭게 만들어질 것임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이 여성으로서의 신체를 부인하고 기술을 통해 여성이 아닌 성이 되거나 헤르마프로디테<sup>26)</sup>가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다. 브라이도티는 오히려 여성성이 그 차이를 인정하고 유지하면서 유목적 페미니스트 주체가 되어야 한다

는 전략으로 맞선다. 포스트휴먼-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생물학적 특징을 지니면서도 다양한 양상을 그 신체에 새기고 다양한 동반종들을 횡단할 수 있는 유목적 주체다. 포스트휴먼의 신체가 여성을 어떻게 재현하고 또 여성이 되어갈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지 기대하면서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여성으로서의 유목적 주체성을 찾아나가는 것이 여성에게 열린 미래이며 가능성이다. 그 가능성 속에서 여성은 표준적이고 고정적인 남성의 이상보다 미래에 더욱 적합한 유목적 주체가 되리라고 전망한다.

여성주의의 논의들은 여전히 생물학적 차이를 강조하거나 반대로 남성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것을 요구하며 같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딜레마 위에 놓여 있다. 여성들은 이러한 오래된 딜레마 위에서 같음을 주장하거나 차이를 주장하는 논쟁을 반복하기보다는, 같음과 차이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변화하는 주체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26) Plato, *Symposium*, 189e-193d 참조.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의 아들이지만 그를 사랑한 님프가 그와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신에게 기도해 한 몸에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다.

## 참고문헌

- 김분선, 「여성 윤리 주체의 자기 체현 기술」, 『한국여성철학』 29, 2018.
- 다나 해러웨이,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자연의 재발명』, 민경숙 역, 서울:동문선, 2002.
- \_\_\_\_\_, 『겸손한 목격자』, 민경숙 역, 서울:갈무리, 2007.
- 도미니크 바벵, 『포스트휴먼과의 만남』, 양영란 역, 서울:궁리, 2007.
- 로지 브라이도티, 『유목적 주체』, 박미선 역, 서울:여이연, 2004.
- \_\_\_\_\_, 『포스트휴먼』, 이경란 역, 파주:아카넷, 2015.
- \_\_\_\_\_, 「새로운 노마디즘을 위하여:페미니즘의 들뢰즈적 궤적 또는 형이상학과 신진대사」, 문화과학사, 『문화과학』 15, 1998.
- \_\_\_\_\_, 「유목적 정치 기획으로서의 성차」, 박미선 역, 『여/성이론』 5, 2001.
- 메리 울스틴크래프트, 『여권의 옹호』, 손영미 역, 고양:연암서가, 2014.
- 박미선, 「로지 브라이도티의 존재론적 차이의 정치학과 유목적 페미니즘」, 『여/성이론』 5, 2001.
- 앤 마리 발사모, 『젠더화된 몸의 기술』, 김경례 역, 서울:아르케, 2012.
- 윤지영, 「주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학으로서의 주체의 콘텐츠화-하이브리드성과 괴물성」, 『철학연구』, 2013.
- 이종관, 『포스트휴먼이 온다』, 고양:사월의 책, 2017.
- 이화인문과학원 편, 『인간과 포스트휴머니즘』, 서울: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3.
- 제인 프리드먼, 『페미니즘』, 이박혜경 역, 서울:이후, 2002.
- 주디 와이즈먼, 『테크노 페미니즘』, 박진희 이현숙 역, 서울:궁리, 2009.
-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천 개의 고원』, 김재인 역, 서울:새물결, 2001.
- 캐럴 페이트만, 『남과 여, 은폐된 성적 계약』, 서울:이후, 2001.
- 케빈 워릭, 『나는 왜 사이보그가 되었는가』, 정은영 역, 파주:김영사, 2004.
- 플라톤, 『향연·파이드로스·리시스』, 박종현 역, 파주:서광사, 2016.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한국포스트휴먼학회, 『포스트휴먼 시대의 휴먼』, 파주: 아카넷, 2016.

Friedan, Betty, *The Feminine Mystique*, NewYork:Norton, 2001.

Ferrando, Francesca, “Is the post-human a post-woman? Cyborgs, robot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futures of gender: a case study”, *European Journal of Futures Research* 2(1), 2014.

Haraway, Donna, “A Manifesto for Cyborgs:Science, Technology, and Socialist Feminism in the 1980s”, *Socialist Review* 80, 1985.

Pepperell, Robert, *The Posthuman Condition: Consciousness beyond the brain*, Bristol:Intellect TM, 2009.

URL=<https://n.news.naver.com/article/053/0000025506>

## Subjectivity of Women in the Posthuman Era

Park, Ye-eun · Cho, Mi-Ra (Chung-Ang Univ.)

This paper aims to predict the aspects and the meanings of representations of sexuality in the era of technology. This paper also examines the conditions in which women would become subjects in the posthumanism's envisioning of the future. Despite posthumanism's optimism, current gender problem will last and femininity will continuously be consumed by society. Contemporary gender binary will remain in women, robots or any kinds of companion species, and will keep them identified as the Other. Replicating masculinity or being neutralized doesn't help women overcome their status as the Other. Given these diagnoses, *via* Braidotti who endorses "differences", this paper attempts to find out 'posthuman-women' are at an advantageous position to become subjects in the future and to confirm their subjectivity is nomadic subject.

**Key words:** posthuman, posthuman-women, post-body, gender, sexuality, Rosi Braidotti, nomadic subject

박예은 e-mail: parkyeeun@hanmail.net

조미라 e-mail: goho38@hanmail.net

|       |               |
|-------|---------------|
| 투 고 일 | 2019년 10월 15일 |
| 심 사 일 | 2019년 11월 13일 |
| 계재확정  | 2019년 11월 13일 |